

섬 많은 전남 크루즈 관광의 메카로 키워야

‘바다 위의 7성 호텔’ 관광객 수요 폭증 여수·목포 모항으로 ... 부두 개발 시급

풍부한 바다 자원을 간직한 전남도에 크루즈 관광은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목포와 여수, 흑산도, 홍도, 신안 다이아몬드 제도 등 아름다운 섬이 많고 순천만과 보성 녹차밭 등 지역 내 관광지와 연계 상품 개발 등도 가능하다.

반면, 여수 크루즈 부두의 정상화와 대형 크루즈를 입항하기 위한 부두 정비 등 풀어야 할 과제도 많다.

◇‘해상 호텔’ 다도해 관광의 핵심 = 크루즈 관광은 전남과 경남 등지를 잇는 남해안선벨트 사업의 핵심 사항 중 하나다. 크루즈는 연륙·연도교 건설, 항로 개척 등 새로운 교통 수단을 마련하지 않고서도 섬이 많이 이들 지역의 관광지를 하나의 관광 상품으로 묶을 수 있기 때문이다.

■ 국내 크루즈시장 규모 및 전망

| 연도 | 국제크루즈 관광수 | 연안크루즈 관광수 | 총크루즈 관광수 |
|------|-----------|-----------|----------|
| 2011 | 121,665 | 39,019 | 160,684 |
| 2012 | 131,510 | 39,463 | 170,973 |
| 2013 | 141,868 | 39,907 | 181,775 |
| 2014 | 153,033 | 40,351 | 193,384 |
| 2015 | 165,056 | 40,795 | 205,851 |
| 2016 | 177,627 | 41,238 | 218,865 |
| 2020 | 237,153 | 43,014 | 280,167 |

(자료: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단위:명)

로온 크루즈 상품이 각광을 받고 있다. ‘바다 위의 7성 호텔’로 불리는 크루즈는 선사뿐 아니라 기항하는 항구와 인근 지역에도 큰 부를 안겨주고 있다. 항구에 내는 항만이용료, 관광지 입장료, 관광객 기념품 구입, 선사의 물품·부식품 구입 등 다양한 부가가치를 낳고 있다. 일본 요코하마항과 인근 지역은 크루즈 선 1척(3만t급)을 유치해 20억원의 수익을 거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전용부두 확충이 관건=전남에는 지난 2004년 일본 국적의 ‘퍼시픽 비너스호’(2만6000t급)호가 여수신항에 입항한 것을 시작으로 2010년까지 10척의 크루즈가 입항했다. 이들 크루즈는 이 지역에 전용부두



한국 최초의 국적 크루즈선인 클럽하모니호의 갑판에서 선상파티가 펼쳐지고 있다. 클럽하모니호는 하모니크루즈(주)가 운영하는 2만6000t급, 승객 1000명 탑승 규모의 크루즈선으로 부산에서 출항, 일본 및 중국노선에 취항 중이다. /니명주기자 mjna@kwangju.co.kr

가 없어 모두 4만3000t급 이하이며 목포신항, 여수신항, 완도항, 광양권 부두 등 다목적용 부두에 맞물려 있다. 전용부두가 아니다 보니 입항시간이 최대 12시간을 넘지 못했고 관광객들은 돌산, 송광사, 낙안읍성, 진도 등지를 돌아보는 데 그쳤다.

하지만 여수세계박람회 기간에 크루즈 전용부두가 생기면서 6척의 크루즈가 모두 21회 여수를 찾았고, 배

의 크기도 최대 7만t급이 접안했고, 24시간 이상 묵어가는 관광객들도 많았다.

이처럼 크루즈 관광의 핵심은 전용부두 확충이다. 출입국관리소 등을 갖춘 크루즈 전용부두를 통한 입국이 편하고, 크루즈가 오랜 시간 머물면서 관광객들이 지역 내 관광지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벌 수 있기 때문이다.

또 크루즈가 대형화되고 있어 여수

크루즈 전용부두(8만t급), 목포 크루즈 전용부두(5만t급 목표)의 시설 보완과 계획 변경 등도 시급하다.

전남발전연구원 이진철 원장은 “여수 전용부두와 목포 전용부두를 크루즈 모항으로 정하고, 흑산도, 홍도, 다이아몬드제도, 진도, 완도, 고흥 반도권을 기항지로 개발하는 등 종합적인 크루즈 관광 활성화 방안이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문화전당에 국립미술관 유치”

강운태 광주시장

강운태 광주시장은 8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하 문화전당) 활성화와 관련해 “국립미술관을 유치하고, 금남지하상가와 문화전당을 연결하는 통로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금남지하상가 활성화 위해선 연결 통로 뚫어야”

강 시장은 이날 오전 강부회의에서 “문화전당의 2014년 준공은 차질없이 진행될 듯 하지만 그 안에 넣을 콘텐츠 개발이 문제”라면서 “문화전당내 창작공간인 제1전시실에 국립미술관을 유치한다면 매년 새로운 콘텐츠를 발굴해야 하는 고민을 다소나마 덜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강 시장은 “참여정부때 광주와 부산에 국립미술관 분관을 설치

하기로 하고 용역비까지 확보했으나, 결국 유야무야 됐다”면서 “940여평 규모의 제1전시실에 국립미술관이 들어선다면 매년 미술품 구입비로 50억원 정도만 투자해도 훌륭한 미술관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강 시장은 또 문화전당과 금남지하상가 연결통로와 관련해 “문화전당역사내에 있는 큰 규모의 통신타워 기계장치 때문에 문화전당쪽으로 통로를 뚫기가 어려웠는데, 최근 도시철도공사에서 관련 시설을 이전할 수 있다는 답변을 들었다”면서 “통로만 만들어 진다면 침체된 금남지하상가 활성화에도 큰 보탬이 되는 만큼 관련 부서는 하루빨리 설계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라”고 지시했다.

강 시장은 이 밖에도 문화전당 광장에 시민들의 이목이나 소망을 새겨넣은 바닥돌을 깔고, 이를 희망하는 시민에게 약간의 재료비를 받는 등의 아이디어도 내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C형 간염 유행률 타지역의 5~10배 禁酒·위생관리로 ‘간암 악화’ 막아야

■ 서남대 박경수 교수가 본 진도 간염 원인·대책

진도군 간염 집단발병의 유행률 요인은 C형 간염이다.

하지만 질병관리본부 역학조사팀은 진도에 C형 간염 유행률이 높은 이유에 대해서는 아직 정확한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질병관리본부의 진도군 암 역학 조사에 참가한 서남대 의대 예방의학과 박경수(48) 교수는 8일 “간염·간암 집단발병 경위 파악을 위해 심층역학 조사를 진행 중”이라며 “잠복기가 짧은 급성 호흡기질환이나 수인성 전염

병과 달리 C형간염이 간암으로 악화되기까지는 10년 이상이 걸리기 때문에 역학조사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C형 간염을 지목한 이유=이번 역학조사는 ‘진도에 간염이 유난히 많은 것 같은지 조사해 달라’는 자치단체의 요청에 따라 지난해 본격 시작됐다. 보건당국이 분석한 결과 실제 이 섬은 주변 전남지역 뿐만 아니라 전국에 비해서도 간염 환자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더 많았다.

간염의 위험인자는 C형간염, 만성

B형간염, 과도한 음주 그리고 이로부터 인한 간경변 등이 있다. 이중 진도군 주민들은 다른 요인은 타지역과 별다른 차이가 없었지만 C형간염 항체 양성률은 무려 5~10배로 높았기 때문에 이를 간염 집단발병의 원인으로 지목했다.

박경수 교수는 “C형 간염을 원인으로 보는 가설 외에 다른 요인은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고 말했다.

◇C형 간염환자 왜 많을까? = C형 간염 환자가 많은 원인은 아직 단정하기 어렵고, 다만 몇 가지 신빙성 있는 가설만이 가능한 실정이다.

C형 간염은 혈액과 체액으로 옮는다. 외국에서는 정맥주사가 흔해 C형 간염과 달리 예방백신이 없고 효과가 좋은 신약도 없다. 항바이러스제를 약으로 쓰지만 부작용이 심한 편이다. 따라서 만성 C형간염 감염자는 음주를 삼가고 건강관리를 철저히 해 간암으로 악화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 또 위생수칙을 지켜 다른 사람에게 감염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박 교수는 “1차 용역조사가 마무리되는 3년 후 정확한 C형 간염의 발병 원인이 밝혀진다면 간암 발병을 차단할 수 있는 방안 마련도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민 예방대책=C형 간염은 B형 간염과 달리 예방백신이 없고 효과가 좋은 신약도 없다. 항바이러스제를 약으로 쓰지만 부작용이 심한 편이다. 따라서 만성 C형간염 감염자는 음주를 삼가고 건강관리를 철저히 해 간암으로 악화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 또 위생수칙을 지켜 다른 사람에게 감염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채희중기자 chae@kwangju.co.kr

우암학원 창학63주년

광주의 새로운 명문 대학교

남부대학교
(062) 970-0114

품을 이루는 특성화 대학교

전남과학대학교
(061) 360-5050

빛의만평

- 김중두



물가 하나도 못잡는걸 ...

Made in Korea
22년 직접생산 노하우!

나눔의 가치를 실현하는 기업

송정인더스트리
SongJeong Industry

사회복지법인 DongHaeng 1963

공드레 보건복지부 중증장애인 생산품생산시설
보건복지부 장애인생산품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
중소기업중앙회 직접생산확인
TheGood 여성사회적기업

장애인들의 보다 나은 삶을 위해 우리와 함께 동행해주시시오!

www.sjblind.com

송정인더스트리

90년부터 시작된 송정인더스트리의 꿈. 장애인의 자립!

광주 전남지역 최초복사용지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

제지사업부 복사용지, 종질지, 신문용지, 친환경용지(A4,A3,B4)

커튼사업부 롤스크린, 블라인드, 천커튼, 무대막, 병원커튼,버틸컬 등

송정인더스트리는 사회적기업으로 사회적 목적을 추구합니다.
제품을 팔기위해 고용하는 것이 아니라 고용을 하기위해 제품을 팝니다.
송정인더스트리는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존재합니다.
현재 우리지역 장애인 40여명이 제품 생산에 참여하여 근로의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다.
송정인더스트리는 보건복지부 지정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입니다.
송정인더스트리가 생산한 제품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의해 우선구매 대상이며, 수익계약이 가능합니다.
송정인더스트리는 22년간 직접생산 노하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 직접생산확인 증명을 받은 업체로 견적상담에서 시공까지 믿고 맡길 수 있습니다.

장애인생산품구매는 또 다른 나눔입니다.

구입문의
061)682-5999
주소 | 여주시 소라면 화양로 1951